

데스크 시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져야 할 때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만 진실은 보장되지 않는다. 흘러 넘치는 정보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다.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선한 가면을 쓰고 한동안 돌아다니다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그 세상이다. 또 그곳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가. 전문가를 위장한 짝퉁들의 거짓 지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치식인 양 유통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거짓 난무하는 인터넷

인터넷에서 진정한 맛집을 찾는 기발한 방법 한가지.

우선 검색 창에 가고자 하는 지명과 맛집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뒤에 '오빠'와 '줄라'라는 키워드를 치면 된다. 이유인즉 포털이나 블로그에 나온 맛집을 다 다녔지만 '오빠'가 데리고간 맛집이 '줄라' 맛있었기 때문이란다.

사이버 정보 홍수시대에 참 쓸쓸한 유머가 아닐 수 없다. 쏟아지는 인터넷 정보 속에서 변별력을 갖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여대를 가던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보 슈퍼맨이 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정보가 낚시질을 당하고, 불어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사실 인터넷 공간은 정보는 넘쳐나지

니 방송반 활동이니 하여 제법 사회문제에 밝고 끈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이가 중학교 들어서는 갑자기 극단적인 용어들에 빠져나며 우리 사회체제를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그 또한 도가 지나쳐 부모가 나서 설득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고민 끝에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인터넷에 가입한 한 사이트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 사이트는 이미 잘 알려진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놀이터였고, 이곳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익명에 가려진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아직도 부모와 아이는 인터넷 사이에 두고 전쟁 중이다. 그 집의 비극은 쉬이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상황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시·도 교육청이 나서야

요즘은 인터넷 공간에 회자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그것인데 디지털 문해력, 즉 디지털 기기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그 의미를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다. 유지원

생이 어려운 대학원 논문을 이해할 수 없듯이 글자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어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관점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인데 그 범주에는 개인이 지식의 능동적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역량과 자신의 지식을 타인과 공유할 때 진실의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함께 배양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지난 3월 서울시 교육청이 '고 1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기관인 오디세이학교를 출발시키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핵심 교과수업에 편입시켰다. 아직은 수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평가는 어렵지만 옳은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당부한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 인터넷 난장에 방치된 아이들을 하루빨리 구해내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다.

/kih8@kwangju.co.kr

은편칼럼

재조지은(再造之恩)과 한반도 정세



이 병 우 단국대학교 교수

이 40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설이다. 시 주석의 대일 공조론 바탕에는 동양전통의 의리론에 입각한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논리가 깔려 있다. 재조지은이 무엇인가. "명이 망해가는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는 철석같은 믿음을 가진가. 임란 이후 조선과 명나라 관계를 규정한 상징적 단어이자 조선 시대부의 시대정신이다. 조선의 임금이 라도 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보전할 수 없었다. 등거리 외교를 펼치다가 인조반정으로 임금 자리에서 쫓겨난 광해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재조지은은 명나라가 청나라에 멸망한 이후에도 조선 지식인들은 명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의리론'으로 이어지고, 재조지은의 주요 행사인 만동묘 제사는 대한제국이 망한 뒤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중국은 긴 호흡으로 역사를 본다. 임진왜란의 중국측 기록은 항왜연조전(抗倭援朝戰)이다. 일본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뜻이다. 그러면 6.25전쟁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번에는 미국에 대

항해서 조선을 구한다는 의미의 '항미원조전(抗美援朝戰)'이다.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격이 같다. 그리고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두 번의 재조지은을 배운 셈이다. 재조지은을 배웠으니 혹시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채권채무의 요인이 되지 않는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강해졌 때마다 한반도는 위기를 맞았다. G2로 부쩍 강대해진 중국과 전통의 우방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새우등 처지이다. 400년 전 조선의 군주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치른 딜레마와 다를 바가 없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애매한 전략으로 대응하다 보니 정부 여당 내에서도 갈피를 제대로 못잡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권으로 성장했다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의 슬한 고난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의 장래를 길게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

북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정작 정부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장만 하고 그 이후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은 소리만 요란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다. 꼭 막혀 있는 남북관계에 답답해 하고 있다. 올 4월에 실시한 D일보의 여론조사에서 한국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미동맹 지속'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0.6%나 된다.

모든 역사는 결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사는 현재의 역사다. 중국의 시주석은 400여년 전 역사적 사건을 끄집어 내 오늘의 한중관계를 이끌고자 했다. 남북관계도 긴 역사의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권유지의 이슈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할 시점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한옥 그 오래된 미래 '한옥 스캔들'



방 길 현 전남도 주택건축과장

밀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한옥박람회는 틀에 박힌 한옥에 대한 생각을 없게 할 것이다. 한옥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20~30대 젊은 층도 한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관을 비롯한 건축자재관과 한옥 목구조체험, 구들체험, 휴식 짓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주거문화는 다양하겠지만, '집'으로 대표된다. 50대쯤 되는 나이라면 집하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로 시작되는 남진의 '집과 함께'라는 유행가와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라는 '즐거움 나의 집'이라는 동요가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 누구나 원하는 주거문화는 철따라 꽃피고 주위에 새가 우는 초원위의 그림같이 세워진 휴식을 주는 집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큰도시 속에서도 시골과 정비되지 않은 농촌의 집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집들이 진정 우리가 꿈꾸어 왔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미래에도 살아야 할 집일까? 걱정하고 화려

한 형용사들로 포장하고 비장한 전략과 달콤한 비전을 내걸어 추진된 도시계획과 재개발들로 인해 만들어진 주거 문화들이 우리 삶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한 점이 바로 한옥건축박람회다. 온고이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대부분 새로운 것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과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것은 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온고이저신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는 과거에 답이 있다. 한옥은 자연재료를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주위와 어울리면서도 그윽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온돌과 마루를 놓아 추위와 더위를 이겨 내면서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주거공간이다. 아가지기한 마당, 장독대, 굴뚝, 담장과 같은 공간은 모나지 않고 주위와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또, 작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삶과도 닮아 있다. 한옥은 옛 것(故)이다. 때문에 한옥은 새로운(新) 방법과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리고, 보강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 우리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한옥은 미래 주거공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한옥은 춥고, 생활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 현대의 주거조건으로 마땅치 않는 논리로 배척되어, 소수 애호가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친 현대인들의 잠실이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는 9일부터 4일간 벚꽃이 흐드러진 구림마을에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내게 휴식을 줄 단아한 한옥과 은근한 스캔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남도의 아름다운 봄날에 가슴 설레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광주U대회 준비 안전·소통에 주안점 뒤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두고 6일부터 3일간 최종 점검에 나선 국제대학교스포츠포럼(FISU)이 선수촌 등 시설 준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막 타메르 FISU 감독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흡족할 것이 없다"면서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은 매우 깔끔하고 잘 지어졌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표단은 한편으로 안전한 대회 운영과 원활한 소통(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조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선수촌 내 선수단 승하차 시 안전 지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특히 각 선수단이 입국부터 선수촌에 등록할 때까지 언어서비스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개막 타메르 위원장도 "광주대회는 한여름인 7월에 열리기 때문에 선수는 물론이고 스태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면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서관 책 구입에 인색한 지역 대학들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도서관 도서 구입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도서관의 부실은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월 대학교육연구소가 내놓은 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국·공립대학교의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는 전국 국·공립대 평균 도서 수 75권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남대는 호남권 가장 낮은 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고작 59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고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라고 자부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 다른 국립대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목포대 61권, 목포해양대 71권 등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순천대가 83권으로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살렸다. 사립대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 65권을 충족한 이 지역 사립대학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남부대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도서 수가 18권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과 투자가 열악했다. 송원대 41권, 광주여대 47권, 조선대50권, 광주대 57권으로 평균치에 밀리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춘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는 적극적이면서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의 핵심 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거의 무관심하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인색한 대학들이 무슨 명분으로 매년 등록금 인상을 내세우는지 의문이다. 대학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혜의 보고(寶庫)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능자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대학들은 일정 비율 예산을 편성해 정서 확보와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88고속도로는 영호남 화합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지역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초 영호남은 교류가 거의 끊긴 상태였다.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와 영남의 분할인 대구 배를 있는 상징적인 동서 화합의 길로 1984년 88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고속도로 이다보니 국도만도 못했다. 중앙분리대도 없는 편도 1차로는 잦은 사고를 유발해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동서 교류가 늘면서 도로 폭도 점차 넓어져 올 연말이면 전 구간이 양복 4차로로 확장된다.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이어 대구시장이 다음달 5·18기념식에 온다. 영호남 교류 정신은 '홍등백서'라는 나주와 영주의 공동 브랜드가 잘 담겨 있다. 양 시는 2013년 1월부터 영주 사고와 나주 배를 한 상자에 담아 홍등백서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동쪽을 상징하는 사과와 서쪽을 대표하는 배를 제사 상차림의 원적인 홍등백서(붉은 과일)는 동쪽, 흰 과일)에 빛대 만들었다. 홍등백서는 영호남 화합의 브랜드로 출시 2년동안 대학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와 상주시는 올해부터 10년동안 1000억 원을 들여 조선감영 역사도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시대 감영이 있었던 공동분묘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복원해 영호남 상생 발전의 모델로 삼겠다는 취지다. 광주시가 달빛동맹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대구시도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지속적인 민간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분야로 교류가 확대된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호남 교류가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2.0시대'에 접어들었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영호남 교류 2.0

왕래를 통해 시작된 광주와 대구의 교류는 2009년 7월 '달빛동맹'을 만들어 냈다.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 우리말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중심이 됐다.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3년 3월 양측이 공동 야전다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에서 23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서는 달빛동맹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시장이 대구 2·28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